



최근 산업보건동향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kr

E-mail kohma@kohma.kr

Tel 02-782-3380

Fax 02-836-3380

[발행일] 2024. 11. 13.

한국산업위생협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대비 강좌 혜택 안내

한국산업위생협회에서 회원분들을 위한 특별혜택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쿠폰 번호를 활용하여 성안당 이러닝 산업안전지도사 1차 대비 강좌를 구매 시 10만원 추가 할인가를 제공합니다.

이 특별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산업보건지도사 또한 2025년부터 시작합니다.

special event
한국산업위생협회
회원 특별혜택

성안당 이러닝 산업안전지도사 1차 대비 강좌를
한국산업위생협회 회원 분들에게 10만원 추가 할인가로 제공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이상국 교수

산업안전일반
이준원 교수

기업전단 지도(경영/산업심리)
김자나 교수

기업전단 지도(산업위생개론)
어원석 교수

[산업안전지도사 1차 마스터 패키지] 할인쿠폰 사용 안내

1단계
원목 QR 코드
인식 후
회원가입

2단계
원목 QR 코드
인식 후 패키지
[즉시 구매]
버튼 클릭

3단계
[쿠폰호출/이용]
버튼 클릭 후,
쿠폰번호 입력/결제

• 쿠폰 번호 : 50452-67357-98579-13381
• 참가 545,000원 > 10만원 할인 적용 시 445,000원에 구매 가능
• 교체 3원 포함 제공 및 배송비 무료 /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교육문의 031-950-6332

성안당 이러닝

발전기금 모금요청의 건

1. 기금 요청 목적

1) 산업위생전문가의 권익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단합

2) 산업보건종사자 및 회원들을 위한 활동

2. 기부방법

1) 현금 : 계좌번호 국민은행 260201-04-2151153 예금주 한국산업위생협회

2) 현물 :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와 기부자 간의 협의

3) 정기적인 기부를 위해 자동이체(CMS)가능함.

3. 기부혜택

1) 법인 : 지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한도 손비 인정

2) 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단, 3천만원 초과시 25% 한도)

4. 기금 지원대상 및 운영방법

1) 지원대상 :

- 협회지 발행, 장학금 지급, 학술대회, 워크숍, 힐링캠프, 체육활동

- 기타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등

2) 운영방법 : 협회 재정과는 별도 비용집행 및 회계처리, 정기적인 감사 실시, 운영실적 정례보고

5. 기타사항

1)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자동이체 이용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알림소식/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참조

2) 문의사항 :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양정란 간사(010-2345-3035)

정부·국회

화학업계, 무재해를 위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확산!

- 화학업종, 올해 마지막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반도체, 자동차, 철강업종 등 대상으로 여덟 차례 포럼, 760여개사 1,600여명 참여

“우리 공장에서 각종 작업 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LG화학에서 고정 플랫폼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작업자의 추락 위험을 없앨 수 있었다.” 협력사 상생협력단 의장인 인솔레이션코리아 대산공장 전이열 현장 소장의 말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1.6.(수) 14시 LG화학 대산공장 대강당(충남 서산)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2024 화학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

본 포럼은 6월 반도체업종을 시작으로 자동차, 통신, 철강, 화학 등 8개 업종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하며 개최되었다. 포럼에는 대기업과 협력사 760여 개사, 자치단체, 학계, 관련 협회 종사자 등 1,600여 명이 참여했다. 여덟 차례의 포럼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에 참여자들에게는 중소 협력사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대기업에도 공급망의 안정성 강화를 가져오는 윈-윈 전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마지막 포럼인 이번 화학포럼에는 LG화학, HD현대오일뱅크 등 화학 관련 모기업과 협력사 종사자, 학계 및 관련 협·단체 전문가 등 180여 명이 참여했다. 화학업종은 대규모 설비와 다양한 공정으로 인해 설계, 운전, 보수 및 유지에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위험한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고 있어 한 번의 화재, 폭발, 누출로도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항상 잠재하고 있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조용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협력사에 위험성평가와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안전관리를 표준화한 미국의 다투케미칼사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서 천영우 인하대 교수는 모든 작업과정에 대해 협력사에 대한 안전관리 상생협력 수준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사례발표에서 LG화학은 협력사 ‘안전관리지원통합시스템’을 통해 일일 세부 작업별 위험요인과 위험도, 안전조치 내용을 공유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화재폭발 등 9종의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와 26종의 체험설비가 있는 안전체험장을 구축하고 사내·외 협력사에 교육을 지원하는 활동을 소개했다.

-이하 생략-

과거의 사고를 반면교사로, 「화학사고 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1월 11일(월) '19년~'23년까지 5년간 발생한 주요 화재·폭발 사고사례(10건)의 사고원인과 과정을 쉽게 설명한 「화학사고 사례집」을 발간했다.

그동안 발간했던 화학사고 사례집들이 화재·폭발 사고원인 및 대책이 전문용어 위주로 작성되어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사례집은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생원인과 과정, 사업장 안전수칙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작성한 최초의 시도이다.

이번 사례집은 화재·폭발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작업환경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사고가 발생한 복합적인 요인을 상세히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화재·폭발 현상에 대한 이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원·하청간 안전보건수칙 등 화재·폭발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수록되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사고는 순간적으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발생원인도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만들어 화학사고 예방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발간하는 「화학사고 사례집」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QR코드 및 전자책 플랫폼(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서도 무료로 볼 수 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과거의 사고를 반면교사로, 「화학사고 사례집」 발간 | 고용노동부 > 뉴스·소식 > 보도·설명 > 보도자료](#)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화학업계, 무재해를 위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확산! | 고용노동부 > 뉴스·소식 > 보도·설명 > 보도자료](#)

안전보건공단

주간 사망사고 속보

- [10/25, 대구 달성군] 주조기 부속품 교체작업 중 작동된 주조기에 끼임
- [10/25, 경기 수원시] 단부에서 거꾸집 상태 점검 중 떨어짐
- [10/21, 경기 여주시] 가설치된 덕트 위치 조정 중 떨어짐
- [10/29, 경북 고령군] 작업 중 컨베이어와 구조물 사이에 끼임
- [10/30, 경기 이천시] 굴러떨어지는 전신주에 깔림
- [10/30, 강원 정선군] 넘어지는 설비에 깔림
- [10/30, 전남 여주시] 선박 해수흡입구가 가동되며 빨려 들어감
- [10/31, 충북 단양군] 로더 버킷 붐이 하강하며 끼임
- [10/31, 전북 군산시] 가동 중인 컨베이어 롤러에 끼임
- [10/31, 강원 강릉시] 철판 절단작업 중 넘어지는 철판에 깔림
- [11/1, 강원 평창군] 차량 하부 정비작업 중 차량이 움직이며 깔림
- [11/4, 충남 홍성군] 전주 철거작업 중 전류가 흐르는 전주에 접촉하여 감전
- [10/21, 경기 화성시] 컨베이어와 운반설비 사이에 끼임
- [10/29, 경기 남양주시] 비계 해체 중 떨어짐
- [11/5, 서울 노원구] 외벽 도장 작업 중 떨어짐

보건위생분야 기술표준 1건, 기술지원규정(구. KOSHA Guide) 정비(안) 20건에 대한 의견수렴 (2024.11.6. ~ 2024.11.11.)

보건위생분야 기술표준 및 기술지원규정 2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공정·공평·공개의 원칙으로 폭넓은 의견을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보건위생분야 기술표준 및 기술지원규정 21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정비(안)명 및 주요내용: 첨부2 참조
* 주요 변경내용은 각 기술지원규정 마지막 장의 '기술지원규정 개정 이력'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접수기간 : 2024.11.6. ~ 2024.11.11.
3. 의견 기재 요령
 - ① 별첨 양식(의견기재 양식)에 따라, 이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및 소속(회사명, 단체명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 ② 의견의 대상이 되는 기술지원규정(안)명, 조항 및 부분 등을 작성양식에 맞춰 명확히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 자료의 입수
상기 1.의 의견제출 양식 및 기술지원규정(안) 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인정보의 취급
본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이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의견수렴 내용의 확인 또는 심의와 관련된 연락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6. 문의처, 의견 제출처
주관부서 및 담당자명 : 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 기술기준부 김우태 차장
전화번호 : 052-703-0593
E-mail : std@kosha.or.kr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 게시판 열기 \(보건위생분야 기술표준 1건, 기술지원규정\(구. KOSHA Guide\) 정비\(안\) 20건에 대한 의견수렴\(2024.11.6. ~ 2024.11.11.\)\)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오이레터

2024년도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제안품목 상시 신청·접수

『2024년도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제안품목 상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마감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제조사 및 수입사는 마감 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 2024. 11. 29.(금) 18:00까지
- 신청사항 : 중·소사업장(현장)에 보급 가능한 스마트 안전장비
- 신청자격 : 산업재해예방 스마트 안전장비 제조사 및 수입사
- 신청방법 : 제안품목신청서 및 제품설명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 developerkosha@kosha.or.kr (pdf파일) 접수
- 세부내용 : 공고문 및 덧붙임 자료 참조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 게시판 읽기\(산업재해예방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제안품목 상시 신청·접수 마감 안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돌봄이 '일'이 아닐 수 있나요?

가족요양보호사가 된 윤옥 씨 이야기

50대 여성 윤옥 씨는 30여 년 동안 수도권에서 콜센터 노동자로 일해왔습니다. 그러다 재작년 팔손을 훌쩍 넘긴 노모가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6개월간 재활병원에서 급성기 재활 치료를 받은 후 집으로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미혼인 윤옥 씨는 고향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재활병원에 계시는 동안 윤옥 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가족요양보호사**가 되었습니다.

내 가족을 돌보는 재가 요양보호사로 수개월간 일한 윤옥 씨는 우측 손목의 건초염을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윤옥씨를 수술한 정형외과 의사는 윤옥씨의 직업이 “요양보호사”라는 말을 듣고 산재를 신청해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의 ‘업무상’재해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일종으로, 자격증을 딴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을 집에서 직접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가족 요양보호사가 지역의 재가 방문 요양센터에 가족 요양을 신청하면 일반적인 경우 하루 60분, 월 최대 20일이 노동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돌봄의 대상이 폭력적이거나 치매, 피해망상 등 문제행동을 보일 경우 하루 90분, 월 최대 31일의 노동시간을 인정받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시급은 국가에서 정해주시 않기 때문에** 재가복지센터마다 시급이 다르고, 소속된 민간 재가복지센터의 기준에 따라 가족 요양 급여를 받습니다.

앞서 소개한 윤옥 씨의 경우 어머니께서 치매를 진단받아 하루 90분, 일 최대 31일의 근로를 인정받았고, 그에 따르면 윤옥씨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시간은 월 46.5시간**입니다. 그 외 윤옥 씨의 시간은 계산되지 않은 돌봄 노동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윤옥씨는 수술 후 회복 기간에 어머니를 모실 수 없어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본인은 요양보호사로 같은 병원에 취직했다가 어머니께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다시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윤옥씨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산재 승인 여부를 넘어 다시 충분히 양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 명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윤옥씨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돌봄을 둘러싼 썩쓸한 의제들을 복합적으로 보여줍니다. 여성에게 전가되는 가족 내 돌봄의 책임, 가족 돌봄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돌봄 노동의 주체에 대한 고려는 없는 가족 요양 제도, 돌봄의 난이도가 높은 대상자의 경우 돌봄이 사회화 되기 매우 어려운 현실, 가족 돌봄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와 더불어 ‘아프면 쉬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픈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돌봄이 '일'이 아닐 수 있나요?](#)

체중이 감소했는데, 콜레스테롤은 왜 증가했을까?

체중이 감소했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증가할까?

지난 10여 년간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체중이 감소했는데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진행한 체지방 감량 캠페인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0명의 신청자 중, 60일간 체지방률을 3%포인트 이상 줄이는 데 성공한 사람은 12명이었습니다. 체중을 감량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이 호전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성공자 중 건강진단 판정이 달라질 만큼 호전된 사람은 단 4명뿐이었습니다.

성공자 중 LDL콜레스테롤이 판정 수준이 달라질 만큼 증가한 사람은 5명으로 오히려 많았습니다. 체중 감량 전 90이었던 LDL콜레스테롤이 152로 증가한 성공자도 있었고, 176에서 208까지 증가한 성공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와는 정반대의 검사결과를 받게 된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성공적'이었던 다이어트를 계속해서 실천할 경우 오히려 건강상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신화에 도전하기

몇몇 참가자들은 안내를 받은 후 즉각적으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본인들도 많이 놀랐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성 질환 가이드에서 권장하듯이 체중과 체지방을 줄였는데 오히려 LDL콜레스테롤이 증가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체중이 감소했는데, 콜레스테롤은 왜 증가했을까?](#)

휴대폰 전자파의 뇌종양 유발 위험 관한 논쟁

무선주파수 전자기장의 뇌종양 유발가능성

최근 세계 보건 기구는 호주 연구진(Karipidis 등)에게 휴대폰 **무선주파수 전자기장** (Radiofrequency-Electromagnetic field, RF-EMF)의 뇌종양을 포함한 암 발생 가능성에 대해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의뢰하였습니다. 발표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링크>](#)

이 논문의 하이라이트

- 1.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RF-EMF 노출은 뇌종양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2. 방송 안테나나 기지국에서 나오는 RF-EMF는 소아암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3. 직업상 RF-EMF에 노출되더라도 뇌종양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좀 더 자세한 설명

- (1) 휴대폰에서 머리로 조사되는 근거리 RF-EMF는 성인과 소아에서 신경교종, 수막종, 청신경종, 뇌하수체 종양, 타액종양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중등도의 확실성)
- (2) 초기 무선전화에서 머리로 조사되는 근거리 RF-EMF는 신경교종, 수막종, 청신경종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낮은 확실성)
- (3) 방송 안테나나 기지국과 같은 고정된 송신기에서 전신으로 조사되는 원거리 RF-EMF는 소아백혈병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으며 (중등도의 확실성), 소아 뇌종양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낮은 확실성). 성인 암과의 연관성을 검토해 볼만한 질 좋은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 (4) 직업성 RF-EMF 노출은 뇌종양, 신경교종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으며 (낮은 신뢰성), 백혈병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검토해 볼만한 질 좋은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휴대폰 전자파의 뇌종양 유발 위험 관한 논쟁](#)